

가 가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국립극단

국립극단 한여름 밤의 꿈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연출 문삼화

## 일정

2019년 12월 4일(수) - 12월 29일(일)

## 장소

명동예술극장

## 제작

(재)국립극단



연출가 인터뷰	〈한여름 밤의 꿈〉, ‘고전 새로 읽기’의 시작 ■ 배선애	2
드라마트루그의 글	한겨울에 만나는 한여름 밤의 이야기 ■ 황이선	8
출연진		10
줄거리		19
인물관계도		20
작품 이해돕기—1	셰익스피어가 <b>가</b> 를 번역반역하다 ■ 마정화	22
작품 이해돕기—2	“참된 사랑은 순탄히 흐른 적이 없다” ■ 김환영	25
연습 스케치		28
스태프 프로필		30
만드는 사람들		31

서계동 연습실에서는 2019년 국립극단 마지막 공연인 〈한여름 밤의 꿈〉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겨울에 만나는 한여름의 이야기라니, 뭔가 아이러니한데 ‘퍽’처럼 장난꾸러기 요정의 조화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법을 부리는 숲처럼 연습실은 마법의 공간이 되어 새로운 〈한여름 밤의 꿈〉을 만들고 있었다. 문삼화 연출과의 대화를 통해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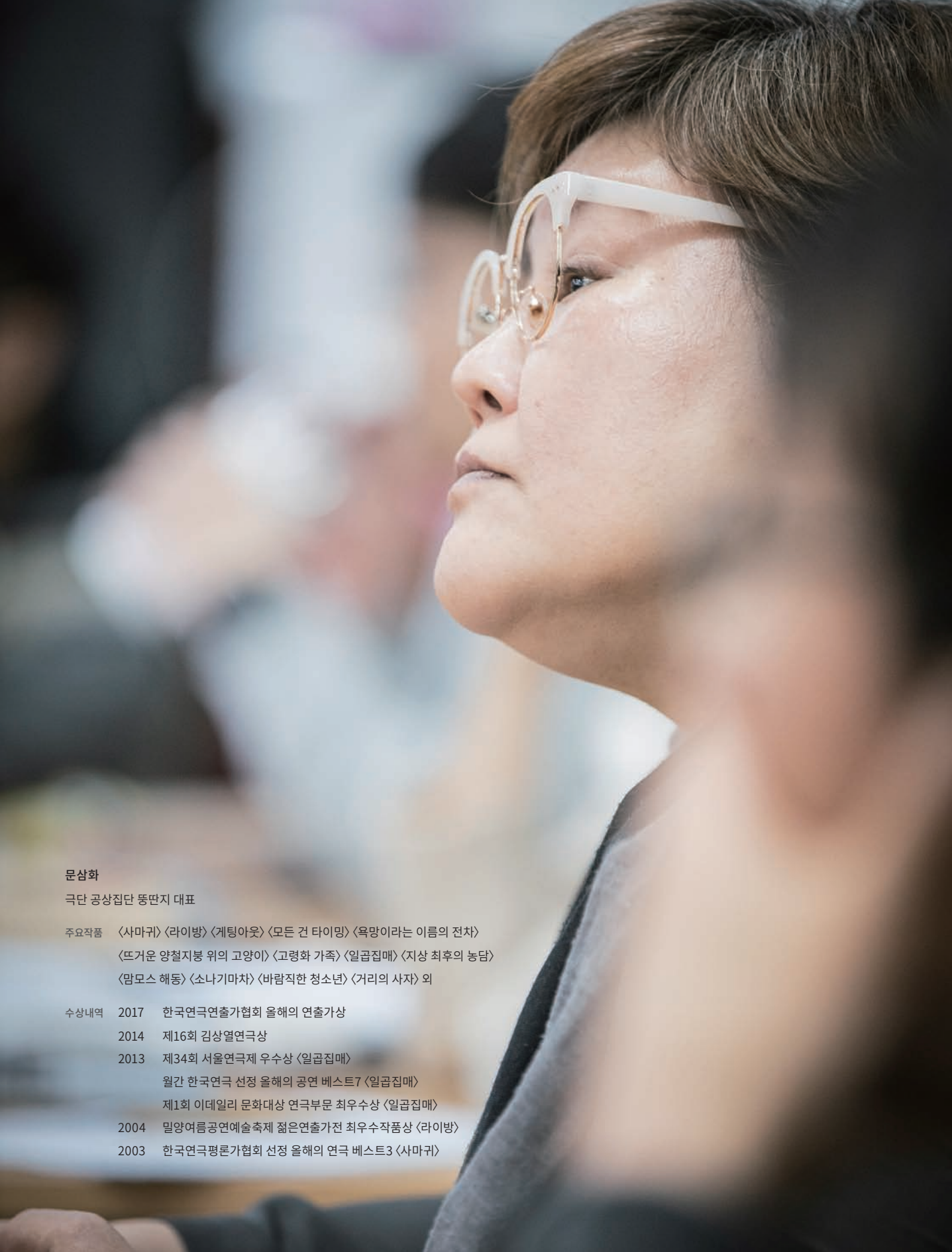
## 〈한여름 밤의 꿈〉, ‘고전 새로 읽기’의 시작

문삼화 연출님은 작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연출하고 계신데, 셰익스피어나 체호프 같은 고전 작품들은 의외로 많이 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출님 작업 중 셰익스피어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나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2006년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공연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이번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대사도 매우 좋고, 연극적 상상력과 구성이 뛰어난, 연극 본연의 매력이 넘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공연할 때, 관습적인 여성 캐릭터가 제 스스로 불편했고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고전을 대할 때 여전히 그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한 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미 그 때부터 문삼화 연출님의 ‘고전 새로 읽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여름 밤의 꿈〉도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품 제작에 들어갈 때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셨나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할 때는 어쨌든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밤의 꿈〉은 낭만희극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낭만희극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의식은 허미아의 입장이 되면 더 구체화됩니다. 허미아는 사랑의 도피를 약속한 라이샌더가 불과 얼마 후에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는 잠시 잠든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대로 사랑의 고백을 쏟아 놓아요. 라이샌더나 디미트리우스는 눈에 꽃즙이라는 마법이라도 걸렸으니 그 순간의 기억들을 잊을 수 있겠지만 허미아는 온전한 정신으로 그걸 다 겪었거든요. 연인의 변덕을 생생하게 겪은 허미아가 마지막 장면 공작의 명령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니까, 허미아가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이 작품은 낭만희극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번역을 해주신 마정화 선생님과 황이선 드라마투르그와 상의를 해서 작품의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문삼화

극단 공장집단 똥단지 대표

주요작품 〈사마귀〉 〈라이방〉 〈게팅아웃〉 〈모든 건 타이밍〉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고령화 가족〉 〈일곱집매〉 〈지상 최후의 농담〉  
〈맘모스 해동〉 〈소나기마차〉 〈바람직한 청소년〉 〈거리의 사자〉 외

수상내역 2017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올해의 연출가상  
2014 제16회 김상열연극상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일곱집매〉  
월간 한국연극 선정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일곱집매〉  
제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일곱집매〉  
2004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연출가전 최우수작품상 〈라이방〉  
200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사마귀〉





“

의도를 반영해서  
바꾼 것은  
두 장면 정도입니다.

하나는 1막의  
1장과 2장 위치를  
바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말입니다.

”

낭만희극이 아닌 <한여름 밤의 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작품이 원작과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변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셰익스피어를 매우 관습적으로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셰익스피어 원작의 대사들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 희극이라고 해도 뭔가 냉소적인, 분위기 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그 느낌을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 대사를 다듬는 작업을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마정화 선생님께서 콘텍스트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황이선 드라마투르그가 윤색 작업을 했습니다. 듣기에 불편한 단어들을 정리하고 바꿔냈더니 대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오히려 셰익스피어 대사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작품 전체 번역과 대사는 원작에 충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의도를 반영해서 바꾼 것은 두 장면 정도입니다. 하나는 1막의 1장과 2장 위치를 바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말입니다. 원작에서 1막 2장인 노동자들의 연극 연습이 우리 작품에서는 첫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이 고전이다보니 현대적 감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노동자들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상과 직업이 고스란히 무대에 오릅니다. 객석에서 가장 가까운 무대 전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작품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조금씩 무대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결말에는 연극 속에 빠져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고전과 현재의 간극을 메우면서, 관객들도 점점 연극에 빠져 들어가듯 노동자들도 연극을 한다는 목적으로 점점 무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결말 부분은 원작 〈한여름 밤의 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을 원작과 다르게 짝지었고, 귀족들 앞에서 공연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조했어요. 그러다보니 공연은 엉망이 되고, 커플들은 폭발하고, 거기에 히폴리타가 아마존 전사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숲의 요괴(이 작품에서는 정령이나 요정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요괴라고 부릅니다)와 함께 난장과 소동의 엔딩을 만들었어요. 결말이 소란스러워 보이지만 오히려 원작의 대사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연극을 보며 귀족들이 상당히 냉소적인 대사들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허미아, 히폴리타 같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 수 없는 인물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난리법석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장면은 원작과 똑같이 찍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본 이전 공연들은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결말이 소동이나 난장으로 끝난다면 이 작품을 알고 있거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는 관객들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품에 대한 연출의 해석과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낭만희극으로 알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막상 공연을 보니 갑자기 블랙코미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장르가 바뀌는 것이라 염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서요.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 간극을 줄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공연이 되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어떤 재미를 가져가기를 바라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요?

‘이 시대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2019년에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전에 대해 조금 다르게 읽는 방법, 즉, 옛날 옛적의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계급 차이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허미아를, 그때도 견고했던 권력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해석을 제안한 것이니까요. 고전을 공연하면서 곧이곧대로, 작가가 의도한 대로 맞춰가면서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의 가치관과 정서, 감수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고전도 거기에 연동해서 언제나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시각, 가치관으로 해석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흔쾌히 ‘그럴 수 있구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넓게, 작품 제작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출님은 직접 번역도 하시는데, 이번 작품은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려워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작품은 제가 번역하기에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했어요. 마정화 선생님을 번역가로 모신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번역가

“

고전을 공연하면서  
곧이곧대로,  
작가가 의도한 대로  
맞춰가면서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는 텍스트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텍스트가 창작되던 셰익스피어 시대 문화 환경과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시기를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꼼꼼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물론 원작의 리듬과 정서는 그대로 살려내면서요. 무엇보다 연극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유기적 움직임과 협업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 번역본에 황이선 드라마투르그가 윤색작가 역할을 겸했는데, 노동자 장면에 대한 강조, 실제 배우들 입에 붙을 수 있는 단어들 같은 것에 중점을 두어 공연 대본이 완성됐습니다.

무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 뒤편에 아주 커다란 달이 걸려 있어요. 원작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달을 커다랗게 만든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을 이용해서 〈한여름 밤의 꿈〉의 마법성은 확보하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2019년 버전으로 재편성 하려 하였습니다. 인물간의 본성을 감출 수는 없지만, 그 본성의 표현이나 태도는 변경시킬 수 있는 마법성이죠. 본의는 표출하되, 방식의 마법성이라 이번 〈한여름 밤의 꿈〉이 장르적 코미디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마법성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실제 무대 뒤의 커다란 달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신비하고 오묘한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지난 2년간 활동한 시즌단원들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과의 작업은 어떤가요?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만.

배우들과의 작업 과정 자체가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배우들 스스로도 시즌단원 활동하는 2년간 역량도 늘고 많은 것들이 축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작품에 대해 뭔가 애뜻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동년배 배우들이 자체적으로 빚어내는 앙상블이 아주 좋습니다. 기본 역량이 출중한데다가 열심히 하기까지 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배우들의 앙상블이 얼마나 근사한지는 극장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장면을 볼 때 음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 콘셉트가 어떤 것인가요?

이번 음악은 RAINBOW99가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클래식 자체로만 가져오지는 않아요. 작품 자체가 고전을 새롭게 혹은 지금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음악도 그 콘셉트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긴 하지만 현대적으로 변용을 합니다. 질감이 다른 음악으로 느껴질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편곡을 하기도 하고, 연주하는 악기 구성에 현대 악기를 함께 넣는 식으로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서는 클래식의 정서가 깔리겠지만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대 뒤의  
커다란 달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신비하고 오묘한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느낀 연출님의 소회를 들으면서 대화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셰익스피어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고전을 새로 읽고, 다시 읽는 것이 최근 경향 중 하나인데, 저 역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새로 읽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정서나 감수성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읽는 작품들 모두가 완전히 새롭게 읽힐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연극은 역시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픽의 꽃집이 마법을 부리지만 연극은 소통으로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 마법이 추운 날씨에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늦더위가 사라지지 않은 가을의 초입 〈한여름 밤의 꿈〉 첫 연습이 시작되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비를 몇 차례 맞고 겨울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겨울에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을 만나게 된다.

티타니아는 오베론과의 대결에서 이렇게 말한다.

“봄, 여름, 결실을 맺을 가을, 화난 겨울이 원래 입던 옷을 서로 바꾸어 입고,  
그 모습에 뭐가 뭘지 몰라 세상은 어리둥절해 하는군.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악의 자식들을 낳았어.

우리의 충돌이.

우리가 지금을 낳은 부모야.”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우리가 만날 충돌의 이야기에 계절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라. 요괴들의 여왕인 티타니아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그들의 부부싸움으로 계절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뭐라 불려도 상관없을 계절의 정점에서 연극 〈한여름 밤의 꿈〉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단장을 한다. 목혀뒀던 옷을 꺼내고, 침구를 바꾸기도 하며, 저장음식을 담그기도 한다. 연습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순서를 밟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 목혀있는 의미를 되새김하며, 2019년 대한민국 국립극단 버전으로 바뀌어야하고,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담아가야 하는 것 까지 고심해야하기 때문이다.

## 마법이 사라진 시대

〈한여름 밤의 꿈〉은 테세우스가 지배하는 아테네와 외곽의 숲, 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딸은 아버지의 것이고, 군주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연인은 광인들과 같기에 테세우스의 아테네와 어울릴 수 없다. 그곳은 마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다. 무대에서 ‘아테네’라는 직접적 언급이 혼동의 여지가 될 수 있어 ‘도시’로 변경하며 ‘숲’과의 간격을 벌리고자하였다.

법과 마법성은 상충되는 단어로 혼용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이 작품을 시작하였다. 요괴들의 세상이며 그들의 일상공간인 숲은 셰익스피어에게 마법과 낭만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최근 올려진 〈한여름 밤의 꿈〉 공연들이 숲과 연인들에게 집중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테세우스와 그의 도시는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마법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꽃집이 통용되어 연인들이 사랑을 이루고, 인간이 당나귀로 변신하며, 계절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싸워대는 요괴왕과 요괴여왕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 한겨울에 만나는

## 한여름 밤의 이야기

황이선\_〈한여름 밤의 꿈〉윤색·드라마트루기

마법의 숲이 2019년 지금을 관통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다. 셰익스피어가 바라고 염원한 마법의 공간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권력과 계급이 이미 견고하게 정착한 ‘도시’로의 회귀는 모든 마법성을 소멸시키고 원작의 결론을 처참하게 무너트리려고야 한다. 도시는 자식이 제 것이니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딸 허미아를 죽이겠다던 이지우스의 희망, 그리고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를 전리품으로 데려와 폭력으로 결혼을 완성하려는 테세우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더하여 허미아와 디미트리우스를 결혼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위험요소로 보이는 헬레나와 라이샌더까지 결혼시키는 악랄한 각색을 펼쳐낸다. 이번 〈한여름 밤의 꿈〉은 이 부분에서 가장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관객이 잊고 있던 테세우스의 절대 권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계급 위의 계급,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되묻고 싶었다.

그렇다면 〈한여름 밤의 꿈〉에 사랑은 없는 것일까? 연인들의 사랑이 처참히 무너진 이번 공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랑은 대체 무엇인지 연습 과정에서 지난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그리고 사랑의 실마리를 당나귀로 변신하는 엉덩이(보팀)에게 찾아보았다. 계절의 한복판 달빛 아래에서 만났던 고귀한 여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이 기억하는 사랑의 기운. 권력과 계급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돌아와 버린 연인들과는 달리, 회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최하위 계급에게 사랑을 부여했다.

직공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변경시켰다. 배달원, 수산시장점원, 아르바이트생, 미용사, 급식원. 이들은 객석에서 등장하여 점점 무대 안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취하게 되는데, 너그러운 관객이시라면 그들과 함께 무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거리를 관통하여 공연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안내자로, 공연 후 되돌아가는 마음의 안내자로 성격을 추가 부여하였다. 극 중 ‘빼기’의 대사처럼

“여기 배우들이 있고,

여러분은 이 공연을 통해 아시고 싶으신 걸 아시게 될 겁니다.”

## 뒤죽박죽 엉켜 버린 시대, 전복되는 계급

테세우스의 명으로 원작과 달리 결혼상대자가 바뀌고 사랑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전복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마법성을 복구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출이 아무리 뛰어도 작가를 이길 수 없다. 한바탕 마구 뛰었으니 손상된 것을 복구해야한다.

원작에서도 직공들은 연극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2019년 국립극단의 〈한여름 밤의 꿈〉은 연인들조차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쾌한 방랑자 펍이 있지 않은가? 인간 세계의 물건에 요괴의 힘을 불어 넣어 달을 움직일 수 있는 펍, 뒤죽박죽 엉켜 버린 일이 제일 신나는 펍 말이다. 펍을 통해 전복되는 무대는 그 공간이 도시이건, 숲이던 상관없이 계급들을 전복시킨다. 히폴리타는 테세우스에게 칼을 겨누고, 허미아와 헬레나는 면사포를 찢는다. 연극을 마무리하지 못한 빼기와 엉덩이는 응징을 당한다. 우리는 마지막을 ‘뒤죽박죽썩’이라 명명했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그 장면이 곧 꿈이며, 또 다른 마법이 될 것이다.



**강해진** Kang Hae-jin

헬레나 Helena

연극

〈스카팜〉 19 | 이아상뜨 | 명동예술극장  
 〈뼈의 기행〉 19 | 영육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록앤롤〉 18 | 질리안 외 | 명동예술극장  
 〈오슬로〉 18 | 트를 외 | 명동예술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레이디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말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 옥진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17 | 연화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유리디스〉 17 | 유리디스 | 여행자 극장  
 〈재생불량소년〉 16 | 경우 | CJ아지트 대학로  
 〈백목원: 유전유죄, 무전무죄〉 15 | 그루웨 | 동송아트센터 동송소극장 외



**양서빈** Yang Savine

허미아 Her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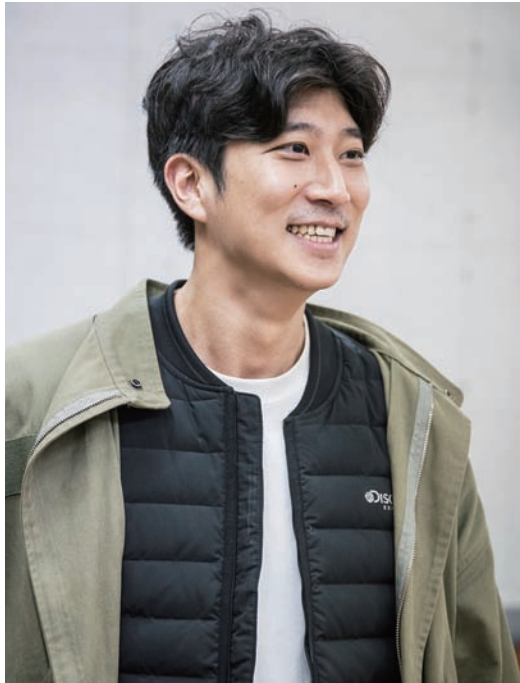
연극

〈스카팜〉 19 | 아르강뜨 | 명동예술극장  
 〈콘서트-동의〉 19 | 게일 | 명동예술극장  
 〈록앤롤〉 18 | 렌카 | 명동예술극장  
 〈운명〉 18 | 박메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빛의 제국〉 17/16 | 소지 | 명동예술극장 외  
 〈탈출, 날숨의 시간〉 16-17 | 미선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홍도〉 15/14 | 홍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칼로막베스〉 14/11/10 | 맹인술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부활〉 13 | 미시 코르차기나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한꺼번에 두 주인을〉 12 | 클라리스 | 명동예술극장  
 〈푸르른 날에〉 11 | 정혜 | 남산예술센터 외

수상

2014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조남용** Cho Namyung

라이샌더 Lysander

연극

〈뼈의기행〉 19 | 사내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오솔로〉 18 | 토르 외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장교 외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한국인 관광객/인부 | 명동예술극장  
 〈히키고모리〉 17 | 태성 | 대학로 달빛극장  
 〈벨마와 프랭키〉 17 | 프랭키 | 대학로 스카이스케터 2관  
 〈벚꽃동산〉 16 | 프로피오프 | 대학로 달빛극장  
 〈RISK〉 16 | 아르투로 | 청담 유씨어터  
 〈The Red〉 15 | 근후 | 스타씨티 TM  
 〈더 러버 & 리뷰스케치〉 15 | 월석 외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My Girl〉 14 | 제이콥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필로우맨〉 10 | 카투리안 | 동숭무대 소극장  
 외



**이원희** Lee Won-hee

디미트리우스 Demetrius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19 | 거리약사 부부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윤상천 | 백성희장민호극장  
 〈페스트〉 18 | 장 타루 | 명동예술극장  
 〈바보리어〉 18/17 | 켄트 | 이해랑예술극장 외  
 〈이 일을 어찌할꼬〉 17 | 소태산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갈매기〉 17/15 | 프리고린 | 대학로 게릴라극장 외  
 〈헨리4세-왕자와 폴스타프〉 16 | 광대장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함익〉 16 | 심재천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제적 인간 연산〉 15 | 임송재 | 명동예술극장  
 〈바나 삼촌〉 15 | 바나 | 대학로 게릴라극장 외  
 〈셰익스피어의 모든 것〉 14 | 베니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외  
 〈궁리〉 12 | 세종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외





**이호철** Lee Ho-cheol

테세우스 / 오베론 Theseus / Oberon

연극

〈스카팽〉 19 | 옥따브 | 명동예술극장  
 〈뼈의 기행〉 19 | 황가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오슬로〉 18 | 론 폰닥 외 | 명동예술극장  
 〈얼굴도둑〉 18 | 남자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중국인관광객 외 | 명동예술극장  
 〈카프카의 소송〉 17/15 | 요제프K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관속에 갇힌 6인의 이야기〉 17 | 김영수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거인이 걸어오고〉 17 | 거인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크리스토퍼 논란 클럽〉 17/14 | 하비 덴트 | CKL스테이지 외  
 〈굴레방다리의 소극〉 16 | 김대식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휴먼코메디〉 15/13 | 아들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외



**정원조** Jeong Won-jo

픽 Pcut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19 | 재엽 | 명동예술극장  
 〈자기 앞의 생〉 19 | 카츠 의사 | 명동예술극장  
 〈록앤롤〉 18 | 나이젤 | 명동예술극장  
 〈오슬로〉 18 | 아이르 허시펠트 | 명동예술극장  
 〈사물함〉 18 | 재우 | 소극장 판  
 〈더 헬멧〉 18 | 헬멧A | 아트원씨어터 3관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재엽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글로리아〉 17 | 로린 | 아트원씨어터 3관  
 〈생각은 자유〉 17 | 재엽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베헤모스〉 17 | 오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정새별** Jung Sae-byul

히폴리타 / 티타니아 Hippolyta / Titania

**연극**

〈콘서트-동의〉 19 | 레이첼 | 명동예술극장  
 〈고독한 목록〉 19 | 여학생 | 백성희장민호극장  
 〈록앤롤〉 18 | 에스메 | 명동예술극장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8 | 공주 | 명동예술극장 외  
 〈성〉 18 | 프리다 | 명동예술극장  
 〈1984〉 17 | 줄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 미소 | 소극장 판  
 〈심청〉 17/16 | 간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썬샤인의 전사들〉 16 | 송시자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고등어〉 16 | 강경주 | 소극장 판  
 〈외계인들〉 15 | 에반 | 대학로 게릴라 극장 외  
 외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신인연기상



**박가령** Park Ga-ryeong

거자씨(요괴) Mustardseed(Fairy)

**연극**

〈스카펄〉 19 | 제르비네트 | 명동예술극장  
 〈갈릴레이의 생애〉 19 | 비르기니아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혜숙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송애라 | 백성희장민호극장  
 〈성〉 18 | 페피 | 명동예술극장  
 〈내가 하늘을 날 때〉 08 | 정현진 | 상명아트홀  
 〈사운드 오브 뮤직〉 00 | 브리짓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외

**드라마**

〈천일의 약속〉 〈부모님 전상서〉 〈천국의 계단〉 〈귀여운 여인〉 외



## 김태완 Kim Tae-Wan

콩꽃(요괴) / 이지우스 Peaseblossom(Fairy) / Egeus

### 연극

〈레드 올랜더스〉 19 | 파굴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빨간도깨비〉 19 | 마을사람 3 | 성수 아트홀  
 〈바람직한 청소년〉 18 | 재범 외 | 소극장 혜화당 외  
 〈쾌락의 정원〉 18 | 떼룩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고백의 제왕〉 17 | 김대식 | 예술공간 서울  
 〈임꺽정 그가 온다!〉 17 | 남상렬 | 예그린 씨어터 외  
 〈오피스 라이프〉 16 | 덕배 | 예술공간 오르다  
 〈파국〉 16 | 창진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에쿠우스〉 15 | 코러스 | 대명문화공장 비발디 파크홀 외  
 〈기억의 체온〉 15 | 야마다 데루오 | 예술공간 서울  
 〈레미제라블〉 13 | 팍외유 외 |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외  
 외



## 박지은 Park Ji-Eun

티끌(요괴) / 필로스트레이트 Moth(Fairy) / Philostrate

### 연극

〈여름과 연기〉 19 | 엘머 |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  
 〈거리의 사자〉 19 | 슈/크리스틴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19 | 김정미 외 |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 외  
 〈미국〉 18 | 미스박 외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유나를 구하라〉 18 | 춘희 | 여행자극장  
 〈이슈우화〉 18, 17 | 여우3 외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외  
 〈무책임〉 16 | 8번 배심원 | 키작은 소나무극장  
 외



## 강지현 Kang Ji-Hyeon

거미줄(요괴) Cobweb(Fairy)

### 연극

〈여름과 연기〉 19 | 넬리 |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  
 〈흰둥이의 방문〉 19 | 해설 | 예술공간서울  
 〈이솝우화〉 19/18 | 여우 외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외  
 〈후산부동구씨〉 18 | 약사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소년소녀전투현장〉 17 | 엄마 | 연주소극장  
 〈땃글전쟁〉 17 | 피해자 | 대학로 소나무길  
 〈복극곰 이야기 프리퀼: 집이 어디예요?〉 16 | 나레이션 | 청운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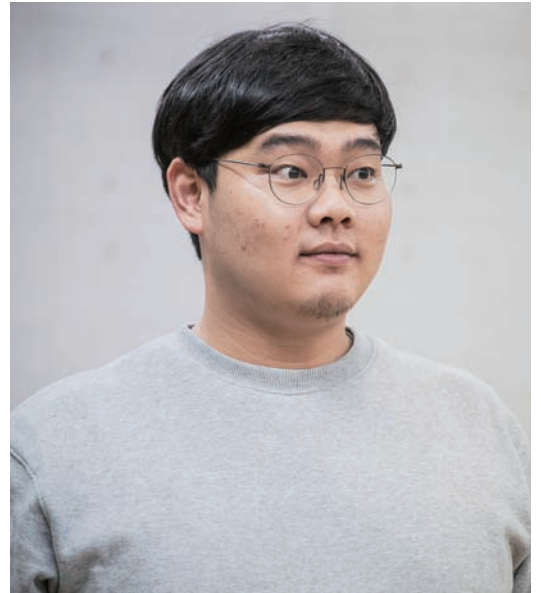


## 박문수 Park Moon-Su

부레옥잠(요괴) Water hyacinth(Fairy)

### 연극

〈카운터 포인트〉 16 | 소현세자 | 동숭아트센터  
 〈The Knock〉 12 | 박태경 | 상명아트홀  
 〈자유종〉 10 | 김기자 | 대학로예술극장  
 〈한씨 연대기〉 10 | 배우 | 대학로예술극장  
 〈전설의 달밤〉 08 | 각수 | 인천문화예술회관  
 〈인류 최초의 키스〉 07 | 상백 | 속초문화예술회관 외



## 김종필 Kim Jong-Pil

물망초(요괴) Myosotis(Fairy)

### 연극

〈나르는 원더우먼〉 18 | 버스기사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와룡산의 작은 뱀〉 18 | 광대 | 진주 과기대 아트홀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이 보인다〉 17 | 박문호 |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너도 먹고 물러나라〉 16 | 광대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14 | 배우 3 | 거제문화예술회관  
 〈호점몽〉 13 | 경찰 | 예산군문화회관  
 〈돈키호테 희망유랑극단 이름〉 12 | 경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외





**홍아론** Hong Aaron  
썬기 피터 퀸스 Peter Quince

연극

〈당통의 죽음〉 19 | 카미유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고독한 목욕〉 19 | 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이수옥 | 백성희장민호극장  
 〈오렌지 북극곰〉 18 | 아빠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1945〉 17 | 오영호 | 명동예술극장  
 〈리어왕〉 15 | 프랑스 왕 외 | 명동예술극장  
 〈남산에서 길을 잃다〉 14 | 젊은 승렬 | 소극장 판  
 〈비행소년 KW4839〉 14 | 케빈 | 백성희장민호극장  
 〈맥베스〉 14 | 케이스네스 외 | 명동예술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13/12 | 티에보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외  
 〈아메리칸 환갑〉 12 | 랄프 | 게릴라 극장  
 외



**박경주** Park Kyung-zoo  
영덩이 닉 보텀 Nick Bottom

연극

〈스카팍〉 19 | 실베스트르 | 명동예술극장  
 〈보이지 않는 도시〉 19 | 개발업자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갈릴레이의 생애〉 19 | 루도비코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박정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장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르투르 외 | 명동예술극장  
 〈얼쑤〉 17 | 허생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BJ 파우스트〉 17 | 파우스트&메피스토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페스카마-고기잡이 배〉 17 | 갑판장 | 동양예술극장 3관  
 외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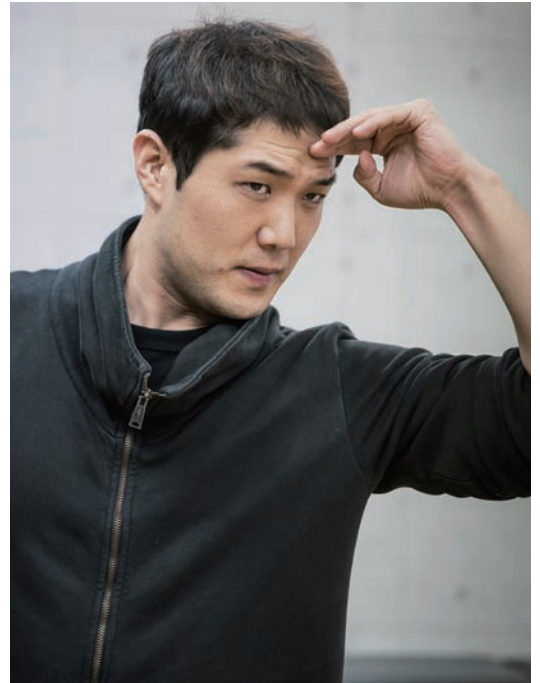


**김수아** Kim Soo-A

포근이 스넥 Snug

연극

〈당통의 죽음〉 19 | 쥘리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뼈의 기행〉 19 | 아낙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우리 박사장의 식칼〉 19 | 박사장 | 연우소극장  
 〈배소고지 이야기〉 19 | 막동이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19 | 스티비 | 선돌극장  
 〈오슬로〉 18 | 마리아느 하이베르그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리유의 아내 | 명동예술극장  
 〈말들의 집〉 17 | 경찰 | 백성희장민호극장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17 | 희수 |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갈매기〉 17 | 니나 | 오페아뜨르  
 〈우리별〉 17 | 엄마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함익〉 16 | 나영옥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외



**임준식** Im Jun-sik

주둥이 톰 스나웃 Tom Snout

연극

〈스카펄〉 19 | 레앙드르 | 명동예술극장  
 〈콘서트-동의〉 19 | 제이크 | 명동예술극장  
 〈고독한 목욕〉 19 | 친구3 | 백성희장민호극장  
 〈햄릿\_아바따〉 18/17/16 | 햄릿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오슬로〉 18 | 하산 아스푸르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젊은 베르나르 리유 |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17 | 영하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모범생들〉 17/13 | 안종태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외  
 〈세상친구〉 17 | 만석 | 대학로 드림시어터 소극장 외  
 〈일리아드〉 16/12 | 아가멤논 | CJ아지트 대학로 외  
 〈히스토리 보이즈〉 14/13 | 렛지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외





## 장지아 Zhang Zia

말라깽이 로빈 스타블링 Robin Starveling

###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19 | 키작은 사제 외 | 명동예술극장  
 〈록엔롤〉 18 | 엘레나 | 명동예술극장  
 〈페리클레스〉 15-16 | 디오니자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세자매〉 13 | 이리나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밤으로의 긴 여로〉 12 | 캐틀린 | 명동예술극장  
 〈아마데우스〉 11 | 콘스탄체 | 명동예술극장  
 〈우어파우스트〉 11 | 그레트헨 | 명동예술극장  
 〈마리화나〉 06-07 | 단지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Getting Out〉 05 | 알리 홀스클로 | 학전블루 소극장  
 〈남자충동〉 04 | 달래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생존도시〉 01-02 | 두리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외

### 수상

2012 제17회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5 제26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 김한 Kim Han

피리 프란시스 플룻 Francis Flute

### 연극

〈스카펄〉 19 | 제롱뜨 | 명동예술극장  
 〈자기 앞의 생〉 19 | 유세프 카디르 | 명동예술극장 외  
 〈록엔롤〉 18 | 페르디난드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조제프 그랑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일본인관광객 | 명동예술극장  
 〈사천의 착한 살인〉 17 | 센테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빛의 제국〉 17/16 | 위성곤 | 명동예술극장 외  
 〈겨울선인장〉 15 | 가즈야 | 윤당아트홀 1관  
 〈키사라기 미키짱〉 15/12 | 이에모토 | 대학로 예술마당 외  
 〈가을반딧불이〉 14 | 분페이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악역배우 남달구〉 11 | 남달구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외

### 뮤지컬

〈운현궁 로맨스〉 13 | 흥선대원군 | 구로아트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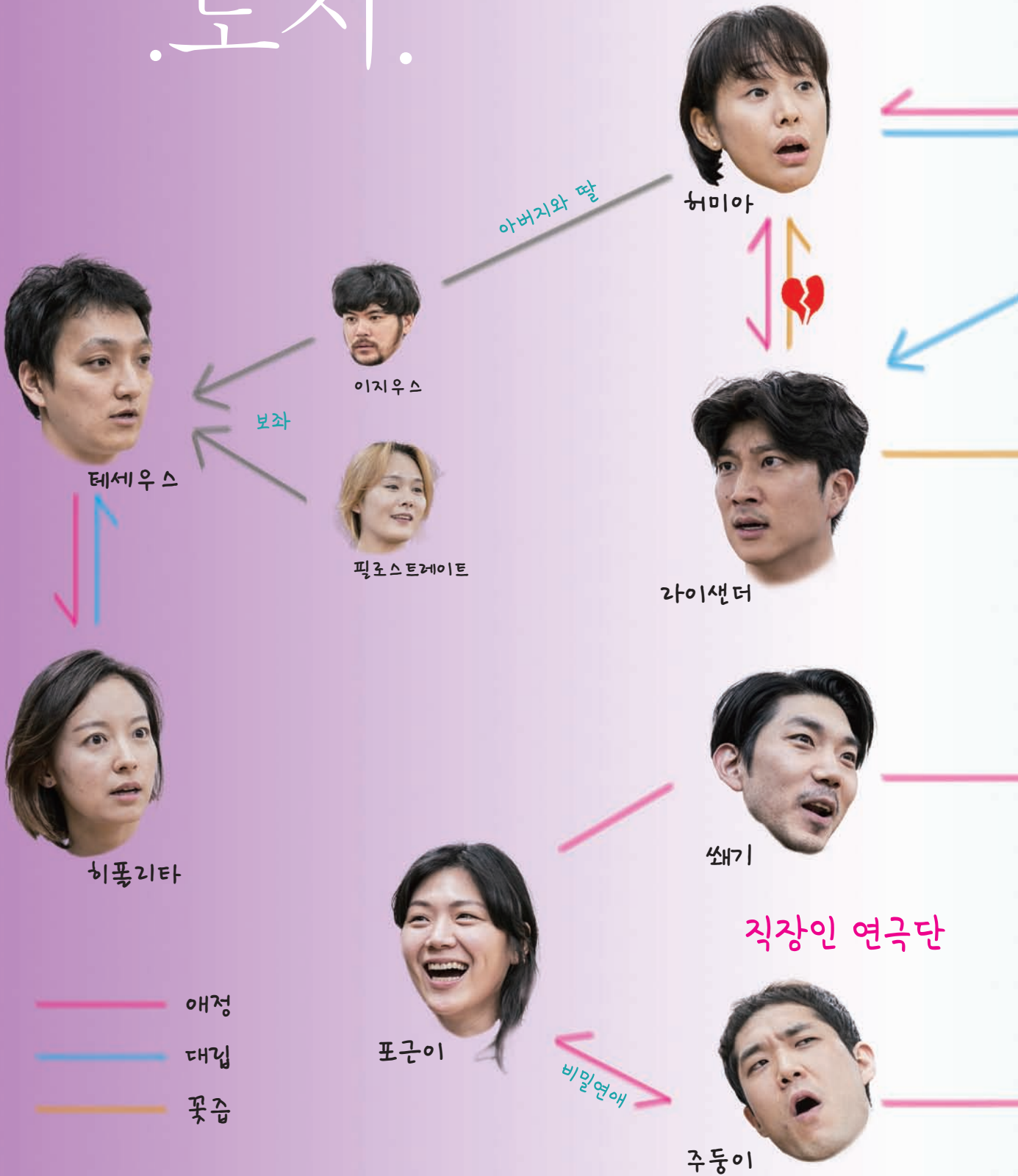
한여름 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서로를 절실히 사랑하는 라이산더와 허미아.  
그러나 허미아의 아버지는 딸이 디미트리우스와 결혼하기를 강요한다.  
반면 헬레나는 디미트리우스를 사랑하지만  
그의 마음은 허미아를 향할 뿐이다. 엇갈린 네 남녀는 숲으로 향하고,  
요괴의 왕이 여왕을 꿀탕 먹이기 위해 쓴 마법은  
우연히 네 남녀에게까지 미친다. 한편, 사회인 연극을 하는 노동자들은  
공작 앞에서 선보일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밤의 숲으로 향하는데...

On a midsummer night,  
something extraordinary is going to hap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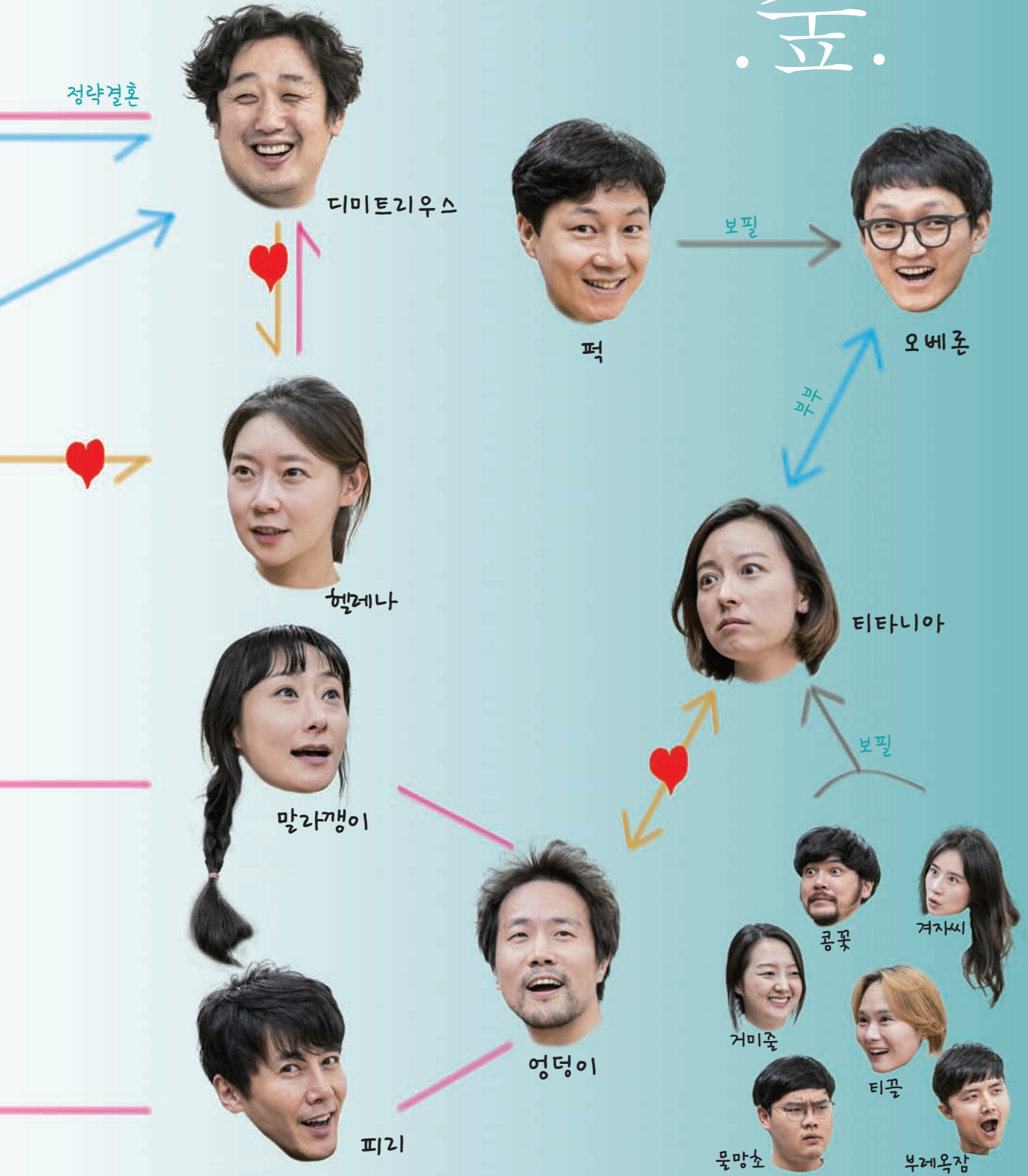
Hermia and Lysander are deeply in love,  
but Hermia's father forces her to marry Demetrius.  
Helena is in love with Demetrius,  
even though he does not return her feelings.  
Those mixed-up lovers cross paths in the woods.  
Fairy king's magic to trick fairy queen misapplies and  
leads to love triangles.  
Meanwhile, a troupe of actors head for the woods  
to rehearse a play for the wedding of the Duke...

# .도시.





# .쇼.



## 셰익스피어가 를 번역 번역하다.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는 걸요. 번역된 책을 읽는 일은 좀 망설여집니다. 그 원본이 워낙 훌륭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읽기엔 언어가 다르고 시도해 보기엔 시간도 없고, 그런 저런 이유로 결국 번역된 글을 읽긴 하지만, 좀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망설이며 읽습니다.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읽지 못한 원본이 떠다닙니다. 과연 맞긴 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빼먹지는 않은 건지, 아니, 도대체 뭘 알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번역자, 번역자! *traduttore, traditore!*”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게 되는 걸 겁니다. 번역은 맞아요, 알고 보면 항상 번역입니다. 어디 글로 옮긴 번역만 그러겠어요? 각색을 통해, 소설이 무대로 옮겨질 때, 영화가 될 때, 시가 춤으로 바뀔 때, 하다못해 무대에 올리라고 쓴 희곡마저 정작 무대에 오른 걸 보고 있으면, 네, 우린 어디까지가 작가의 몫이고 어디서부터 옮긴 사람들이 망쳐버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그 때쯤이면 번역자에 대한 확실한 처단 같은 걸 꿈꿔봅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스페인 극작가인 칼데론 *Pedro Calderon de la Barca*은 자신의 희곡 〈인생은 꿈〉에서 왜 번역자를 처단해야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번역은 행해졌고, 더 이상 번역자는 필요치 않아.” 맞습니다. 셰익스피어보다 약간 후대의 희곡작가인 토마스 미들턴 *Thomas Middleton*은 〈복수자 비극〉에서 쿠데타를 성공하고 번역자를 처단하는 영웅에게 이런 대사를 줍니다. “하늘께 비노니 모든 번역이 그들의 피로 씻겨 내려지길.” 번역은 피로 씻어내야 할 허물입니다. 어쩌면 번역도?

셰익스피어가 번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생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희곡으로 다시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번역에 대해 관대했을 거란 말은 아닙니다.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도 베케트 *Samuel Beckett*도 자신의 글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직접 했었지만 번역에 대해 그만큼 신랄하고 인색한 평을 준 작가도 없을 겁니다. 원래 남이 하는 자기 분야 일에 가장 가혹한 법이니깐요. 셰익스피어의 의견은 모르지만 그는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희곡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주제를 전혀 다른 방향의 글쓰기로 두 번 무대에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한여름 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가 같은 해에 썼다고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의 뒤집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번역이라고 옮겨지는 영어의 “to translate”는 그 당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뜻 말고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to translate”라는 동사를 극에서 세 번 사용합니다. 처음 헬레나가 허미아를 부러워하며 “온 세상이 내 것이라면, 디미트리우스를 뺀 나머지

마정화\_〈한여름 밤의 꿈〉 번역

를 다 내주고 너로 옮겨질 텐데.”라고 말할 때 너로 translate되고 싶다고 하죠. 그 다음 숲에서 연극 연습을 하던 중 한 명이 썩의 마법에 걸려 노새의 얼굴로 나타나자 다른 한 명이 놀라 소리 지릅니다. “너 바뀌었어you are translated!” 그 일을 저지른 썩이 오베론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미남 피라무스는 거기 바뀐 채translated로 두고 왔습니다.” 이제 to translate라는 단어는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바뀌다to transform의 의미로 읽혀지고 번역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죠. 분명 “바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셰익스피어는 노동자 엉덩이가 노새로 바뀌어 요괴들의 세상으로 가 버린 일을, 그리고 헬레나가 허미아로 바뀌고 싶은 마음을 “to translate”라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언어가 바뀐 건 아니니 그보다는 다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넘어가 버린 거죠. 바뀐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 셰익스피어는 “이동하다”라는 의미인 “to transport”를 써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도시를 헤매며 친구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한 다른 노동자들은 공연일이 되자 침울해집니다. “아무도 모른다. 진짜 딴 세상으로 갔나 봐.He cannot be heard of. Out of doubt he is transported.”

셰익스피어에게 번역이란 하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일이었던 거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상에서 아테네 바깥의 숲으로 옮겨지는 일. 헬레나의 세상에서 허미아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일. 인간의 세상에서 그 바깥 어딘가로 가버리는 일. 그리고 글자의 세상에서 배우들의 세계로 날아가 버리는 일. 그에게 번역이란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었고, 그런 세상에서 원본이란 건 그저 옮겨가며 버어놓은 뱀의 허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형태는 갖고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아닌 것.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맞지 않은 예전의 옷과 같은 것.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전 세상이란 그저 거 추장스럽죠. 없애야 할 것. 맞서야 할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번역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이지요.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넘어가는 일은 바로 지금의 세상을 뒤집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극은 희곡을 번역, 아니 번역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테세우스와 이지우스의 법이 지배하는 아테네와 그 아테네를 둘러싼, 요괴들이 휘젓고 다니는 숲. 아테네에선 테세우스가, 이지우스가 곧 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고 결혼은 무조건 실행되어야만 하고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숲에선 어느 것도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곳은 티타니아와 오베론의 전쟁으로 계절이 엉켜버렸고, 필요하다면 인간을 노새로 바꾸어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짝짓기를 시켜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법을 움직이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은 숲으로 들어가 정말 다른 세상으로 “translated“됩니다. 그 저 바뀐 게 아니라 옮겨진 거죠. 처음 헬레나의 소망처럼요.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고 허미아로 옮겨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오베론의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과는 헬레나가 생각한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옮겨지면서, 바뀌면서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흐릿하고 두 개로 보여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곳.

셰익스피어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면서 동시에 사랑에 관해 가장 신랄한 희극인 <한여름 밤의 꿈>을 썼습니다. 무엇을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을 약속하고 죽음으로 그 약속을 이룬 어린 연인들의 이야기는 <한여름 밤의

“  
셰익스피어에게  
번역이란  
하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일이었던 거 같아요.  
”



꿈>에서는 초조하게 첫날밤을 기다리는 테세우스와 다른 귀족들의 시간 때우기 여흥거리로 조롱당합니다. 하다못해 그 연극의 연인들은 <한여름 밤의 꿈>에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못 됩니다. 여긴 너무 많은 연인과 너무 많은 사랑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랑이, 네, 다 기이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허미아의 아버지 이지우스와 아테네의 법을 피해 숲으로 달아난 허미아와 라이산더의 사랑은 숲의 요괴가 벌인 사소한 실수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헬레나는 원하는 디미트리우스의 사랑 고백을 듣지만 그 갑작스러운 고백은 놀림보다 더 불쾌할 뿐이죠. 꽃즙의 영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졌던 티타니아는 해독제를 넣자마자 옷에 묻은 풀잎을 털어내듯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오베론은 인간의 연인들에겐 해독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꽃즙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부작용 같은 거 상관할 바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연인들은, 특히 헬레나와 허미아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다시 옮겨진 이 세상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꽃즙도 없이 나홀로 시간을 건디며 원치 않는 결혼을 맞이하는 히폴리타가 있는 세상을요?

모든 글은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작가가 다시 읽을 때, 독자가 읽을 때, 무대에서 배우들이 보여줄 때, 그 글은 새로운 의미로 번역됩니다. 특히 고전은, 너무 많은 읽기로 너털너털해진 오랜 이야기들은 깔끔하게 닫아버린 한 권의 책으로만 있지 못합니다. 읽는 일은 계속 새로운 책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다시 쓰여지고 다시 번역됩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 집니다. 그렇게 작가가 열어 준 문으로 들어온 독자들은 마침내 찬탈에 성공합니다. 그러니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만이, 끝없는 배신만이 책을, 희곡을, 셰익스피어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낼 뿐이죠.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여름 밤의 꿈>으로 다시 읽어내듯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원래의 이야기를 씻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한여름 밤의 꿈>은 이번에 다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무대로 옮겨 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읽을 “한여름 밤의 꿈”이 셰익스피어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가 쓴 글 사이사이 스며있었던 번역이라고 우겨 봅니다. 셰익스피어가 열어놓은 번역의 길을 따라간 거라고. 그리고 아니라면 되돌아오면 됩니다. 찌꺼기 말처럼 또 만들면 되죠. 번역은, 아니 번역은, 다시 읽기는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셰익스피어가 열어 놓은 세계로 들어가 그가 헤집어 놓은 세상을 같이 헤집어 놓는 일. 그런 번역적인 읽기를 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번역을 도모한 작가에게 이렇게 말해 봅니다. “Will, Will. You are translated. You are translated to me, to us.”



“  
모든 글은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

로맨틱 코미디인 〈한여름 밤의 꿈〉을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렇게 소개한다.

1.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 숲속 요정들의 도움으로 두 쌍의 젊은이들이 사랑을 이루어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모두 5막으로 되어 있다.”
2. “멘델스존이 작곡한 관현악곡. 셰익스피어가 지은 같은 이름의 작품에 붙인 곡이며, ‘결혼 행진곡’은 그 한 부분이다.”

## “참된 사랑은 순탄히 흐른 적이 없다” :

### 로맨틱 코미디 〈한여름 밤의 꿈〉

김환영\_중앙일보 대기자

\* 본 원고는

『월간중앙』 45권 9호(통권526호, 2019년 9월)에 실린 글을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 본 원고는

원작 〈한여름 밤의 꿈〉을 배경으로 하여,  
공연과 일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결국엔  
봄이나 여름에 꾸는 꿈이다.

우리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신부·  
신랑이 퇴장할 때 ‘한여름 밤의 꿈’을  
듣는다. 그런데 ‘한여름’이란 무엇일

까. ‘한’은 여러 단어에 ‘크다·정확하다·한창이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접두사  
한이 붙은 단어로는 한가득·한가운데·한가위·한걱정·한길·한바탕·한시름·한낫·  
한밤 등이 있다. ‘한’은 한봄(봄이 한창인 때), 한여름(더위가 한창인 여름), 한가을(한  
창 무르익은 가을철), 한겨울(추위가 한창인 겨울)의 경우처럼 계절 구분에도 쓰인다.

꿈이란 또 무엇일까.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다.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생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일장—場’이 필요하다. 일  
장은 “어떤 일이 벌어진 한 판”이다. 일장에서 장場은 마당이다. 마당은 “어떤 일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셰익스피어에게 마당은 무대stage였다. 장場 중에도  
최고의 한마당은 난장亂場이다.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된 곳”인 난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꿈속 세상은  
뒤죽박죽이다. 난장판이다. 현실 세계와 달리 공간·시간·인과율이 마구 엉켜 있  
는 게 꿈 세계다.

카를 마르크스(1818~1883)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지만 “꿈은 아편  
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종교나 꿈은 결코 ‘헛된 기대나 생각’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문명과 사실상 동의어였다. 목사인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1929~1968)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아포리즘으  
로 세상을 바꿨다. 루서 킹 목사의 꿈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었  
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 ‘꿈’은 ‘자유 연애결혼’라 할 수 있다. 계급과 신분, 재산  
의 차이는 ‘자유 연애결혼’을 방해한다. 상당수 부모들이 계급·신분·재산의 차이  
를 빌미 삼아 자식들의 결혼을 반대한다. (21세기인 오늘날)전형적인 경우에는 ‘나  
이 많고 못생긴 부자 사위’를 바라는 부모와 ‘젊고 잘생기고 가난한 남편감’을 바  
라는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한여름 밤의 꿈〉은 계급·신분·재산의 차이를 일  
단 무시해버린다. 오로지 맞사랑(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짝사랑(한쪽만 상대편을 사  
랑하는 일)에 집중한다.

〈한여름 밤의 꿈〉은 ① 두 쌍의 귀족 자제들의 결혼 ② 왕과 여왕의 결혼 ③ 부부싸움 중이던 또 다른 왕·여왕 커플의 화해로 끝난다. 극이 시작할 때 고대 아테네의 군주 테세우스는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와 결혼을 4일가량 앞두고 있다. 테세우스는 아마존 종족을 정복했다. 히폴리타는 일종의 ‘전리품’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별다른 갈등은 없다. “히폴리타여, 나는 그대를 내 칼로 구애했소. 그리고 그대의 사랑을 상처를 입힘으로써 얻었소. Hyppolyta, I have wooed thee with my sword. And won thy love by doing the injuries.” 21세기 기준으로 좀 이상하다.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테세우스 앞에 골치 아픈 민원이 들어온다. 명망 있는 귀족 이지우스가 나타나 딸 허미아가 귀족 자제 디미트리우스와 결혼하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한다. 딸은 라이샌더와 결혼하는 게 꿈이다. 라이샌더도 허미아와 결혼하고 싶다. 맞사랑이다. 디미트리우스도 허미아와 결혼하는 게 꿈이다. 하지만 허미아는 디미트리우스가 별로다. 디미트리우스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짝사랑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또 다른 짝사랑이 있다. 허미아의 절친인 헬레나가 디미트리우스를 짝사랑한다.

허미아는 라이샌더만 사랑한다. 라이샌더와 디미트리우스 모두 허미아를 점 찍었다. 왜일까. 인간의 선호選好 감정은 미스터리다. 그냥 싫고, 그냥 좋은 경우가 많다. 연애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은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진실을 감춘다. (세익스피어는 많은 경우 답을 주지 않는다. 그저 미스터리를 드러낼 뿐이다.)

허미아와 라이샌더는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기로 약속한다. 일단 숲에서 만나기로 한다. 허미아에게 헬레나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절친이었다. 헬레나는 디미트리우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허미아의 도피 계획을 밀고한다. 이 두 쌍이 들어간 숲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다. 숲에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테세우스·히폴리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와 있었다. 오베론 왕에게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잠든 사람의 눈꺼풀에 뿌리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보는 동물이나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묘약이었다. 마침 오베론-티타니아 커플은 부부싸움 중이었다. 오베론은 부하 펙에게 명령해 아내 티타니아에게 물약을 뿌리도록 명령한다. 잠에서 깨어난 티타니아는 당나귀 머리를 한 보텀을 사랑하게 된다.

오베론 왕은 우연히 헬레나와 디미트리우스가 옥신각신하는 말을 들었다. 헬레나에게 측은지심을 느낀 그는 펙에게 디미트리우스의 눈에 약물을 뿌리라고 명령한다. 펙은 실수로 디미트리우스가 아니라 라이샌더의 눈에 약을 뿌렸다. 라이샌더가 잠에서 깼을 때 눈에 보인 것은 헬레나였다. 펙은 실수를 바로잡고자 원래 명령대로 디미트리우스에게 약을 분사했다. 디미트리우스 또한 처음 본 것은 헬레나였다. 사랑의 묘약 때문에 ‘전과 후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졌다. 두 남자 모두 허미아를 사랑하던 상황에서, 두 남자 모두 헬레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은 1594년 혹은 1595년에 집필됐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거의 같은 시기다. 비극

으로 끝나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달리 <한여름 밤의 꿈>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마도 귀족의 결혼식 축하 공연을 위해 쓴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의 극중극(劇中劇)인 <피라무스와 티스베의 가장 통탄할 코미디와 가장 잔인한 죽음 The Most Lamentable Comedy and Most Cruel Death of Pyramus and Thisbe>은 비극이다.

권력은 사랑에 간섭한다. 셰익스피어가 <한여름 밤의 꿈>에서 설정한 아테네에서도 숲에서도 권력은 사랑에 간섭한다. 양쪽 세계 모두 정치적이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다. 근대화 이전에 권력의 정점은 군주다. 아테네의 군주 테세우스는 처음에는 이지우스의 손을 들어준다. 극의 마지막에서는 허미아-라이샌더 편을 들어준다. 숲의 군주 오베론 또한 사랑에 개입한다. 허미아-라이샌더, 디미트리우스-헬레나 커플을 만든 것은 결국 오베론의 개입이다. 주권재민의 시대에는 과연 ‘자유연애 결혼’이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까.

**사랑의 세계는 마술의 세계이자  
지극히 이상적인 세계다.**

이성과 감정도 사랑에 개입한다. 아테네가 상징하는 도시는 이성, 숲이 상징하는 자연은 비이성을 상징한다. 아테네는 낮, 숲은 밤이다. 아테네

는 코스모스, 숲은 카오스다. 흥미로운 점은 아테네보다 숲속에서 오히려 인과율이 더 잘 작동한다. 아테네에서는 귀족 자체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끌린다. 숲 속에서는 사랑의 묘약이 원인, 사랑이 결과다.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사랑은 마법·마술이다. 사랑에는 분명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랑은 이성적이기도 하다. 숲에서 디미트리우스와 라이샌더 둘 다 헬레나를 좋아하게 되지만, 헬레나는 반기지 않는다. 두 남자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변화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변덕이 있다. 남자도 여자도 변덕스럽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 디미트리우스는 헬레나에서 허미아로, 허미아에서 헬레나로 그를 눈멀게 하는 대상이 바뀐다. 반면 대조적으로 헬레나와 허미아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마법의 영향 하에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는 당나귀 얼굴을 한 보텀을 사랑한다. 세상은 자유와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랑의 영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랑의 평등’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맞사랑을 향유하고 어떤 다른 사람은 짝사랑만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시 사람들은 상당수가 숲의 요정을 믿었다. 요정은 “서양 전설이나 동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유명한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근대를 탈마술화(Entzauberung·disenchantment)라는 개념으로 살폈다. 근대가 탈마술화라면, 어쩌면 탈근대는 재마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 마침 숲은 상상력의 세계다. 소위 제4차 산업시대나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생존과 가장 밀접한 것은 상상력이다.

시대를 초월해 극 중의 다음 두 마디는 항상 옳은 것 같다.

“사랑은 눈을 통해 보지 않는다 Love looks not with the eyes.”

“참된 사랑은 순탄히 흐른 적이 없다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작—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유려한 언어감과 탁월한 문장력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어낸 스토리텔러. 그의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드라마틱한 사랑, 욕망, 복수, 배신을 긴장감 넘치게 재구성한 것으로, 탁월한 문장력은 지금도 여전히 흡인력을 가진다. 시공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발휘하는 작품들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고민까지 담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들은 8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연구되고, 공연되고 있다.

번역—마정화 Ma Jung-hwa

번역 <래러미 프로젝트> <다른 곳의 궁전>  
 드라마투르기 [오페라] <Manon> [연극] <태풍기담> <하드보일드 멜랑콜리아>  
 번역 및 드라마투르기 <단편소설집> <말피Malfi> <랭귀지 아카이브> <보이 갯츠 걸> <네더> <상처투성이 운동장> <러브>  
 출판 <래러미 프로젝트 그리고 래러미 프로젝트 십년 후> 열화당, 2018

운석·드라마투르기—황이선 Hwang E-sun

연출 <코뿔소> <사형수의 자전거> <후산부, 동구씨> <이슈우화>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환영> <대한국사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외  
 작 <앨리스를 찾아서>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봄은 한철이다> 외  
 수상 2014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우수상,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연출가전 무대예술상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대상 <환영>

연출—문삼화 Moon Sam-hwa

프로필 \_ 3페이지

움직임—고재경 Ko Jae-kyoung

연극 <개고기 숲> <거대 강입자 가속기의 음모> <얼굴도둑> <광장의 왕> <우주의 물방울> <정크, 클라운> <여가수 진수린> <적산가옥> 외  
 수상 2018 제20회 김상열연극상

무대·소품—김혜지 Kim Hye-ji

연극 <코뿔소> <인간> <거리의 사자들> <이슈우화> <소나기 마차> <지상 최후의 농담> <맘모스 해동> <바람직한 청소년> 외  
 뮤지컬 <더 언더독> <군> <커피프린스 1호점> <내 인생의 특종> <힐링 하트> 외  
 오페라 <라보엠>  
 수상 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무대디자인부문

조명—박성희 Park Sung-hee

연극 <1945> <소나기 마차> <블랙버드> <성난 10인의 사람들> <햄릿 아바따> <핑키와 그랑조> <맘모스 해동> <바람직한 청소년> 외  
 뮤지컬 <광염소나타> <판타지아> <익스페리멘탈 보이> <웨딩플레이어> 외  
 수상 2017 제4회 서울연극인대상 올해의 스태프상

의상—장혜숙 Jang Hye-sook

상명대학교 공연영상문화예술학부 무대미술학과 교수  
 연극 <햄릿 아바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보이체크> <리차드 2세> 외  
 뮤지컬 <날개> <군> 외  
 수상 2012 제33회 서울연극제 무대의상상

음악·음향—RAINBOW99

연극 <오만한 후손> <코뿔소> <애니깽> <안녕, 아라발> <지상 최후의 농담> <소나기 마차> 외  
 영화 <동물, 원> <303> <디셈버> <밀월도 가는 길> 외  
 애니메이션 <쫄> <집>

분장—이동민 Lee Dong-min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오슬로> <호신술> <돼지우리> <1945> <실수연발> <함익> <혈맥> <헨리 4세> <맘모스 해동>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아버지와 아들> <먼 데서 오는 여자> <줄리어스 시저> <과부들> <맨 끝줄 소년> 외  
 수상 2016 Asia 美 Awards Best stage makeup artist award

조연출—박문수 Park Moon-su

연출 <빨간 도깨비> <그게 아닌데> <그 옷> <하지만 내 꿈인 걸> 외  
 조연출 <오슬로> <자기 앞의 생> <거리의 사자> 외

조연출—김종필 Kim Jong-pil

조연출 데뷔

## 만드는 사람들

### 출연

강지현 거미줄(요괴)  
 강해진 헬레나  
 김수아 포근이 스녀  
 김종필 물망초(요괴)  
 김태완 이지우스·콩꽃(요괴)  
 김한 피리 프란시스 플롯  
 박가령 겨자씨(요괴)  
 박경주 엉덩이 닉 보텀  
 박문수 부레옥잠(요괴)  
 박지은 필로스트레이트·티끌(요괴)  
 양서빈 허미아  
 이원희 디미트리우스  
 이호철 테세우스·오베론  
 임준식 주동이 톱 스나웃  
 장지아 말라깽이 로빈 스타블링  
 정세별 히폴리타·티타니아  
 정원조 펍  
 조남용 라이샌더  
 홍아론 빼기 피터 퀸스

### 스태프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마정화  
 윤색·드라마투르기 황이선  
 연출 문삼화  
 움직임 고재경  
 무대·소품 김혜지  
 조명 박성희  
 의상 장혜숙  
 음악·음향 RAINBOW99  
 분장 이동민  
 조연출 박문수 김종필  
 무대디자인 보 한수정  
 조명디자인 보 문영현  
 의상디자인 보 김민옥  
 음악감독 보 신지용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이미현 최정환 최성관 최소영 이재훈  
 조명오퍼레이터 김지유  
 조명프로그래머 문동민  
 조명팔로우 문영현 이승준  
 음향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진행 신은혜 최단비  
 분장진행 이승주 배효정 이지선  
 무대제작 온스테이지\_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이재경무대의상\_대표 이재경  
 소품제작 인감\_대표 이규동  
 조명장비임차 ㈜칠삼컴퍼니\_대표 백시원  
 조명팀 한종엽 박지선 최미경 조은실 김봉균  
 의상팀 김지련 이다혜 이희재 조은비  
 음향팀 신지용 한동찬  
 소품팀 이희순  
 영문자막 번역 마정화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이송이 조영채  
 마케팅 이정민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효진  
 김울  
 대학생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WT  
 홍보사진 나승열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스팟영상 602STUDIO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프로젝트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옥외광고 애니애드 문화공장오감 쇼닥터  
 홍보물 인쇄 인타임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김보전 이현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박민주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김예인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유지율 고정윤  
 강소현 강유석 장지영 채지성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영래  
 프로듀서 보 박소영  
 제작진행 정은서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예술감독

이성열

##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실

정영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박소영 프로듀서 보 | 정은서 청년인턴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송이 변정원 조영채 최윤영 홍보 |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김을 박보영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솔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웅 홍아론

2019. 11. 21. - 12. 15.

연출: 윤환술

무대: 신승렬

조명: 김형연

의상: 이은경

분장/소품: 장경숙

영상: 윤민철

음악: 음브레

음향: 심태형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리서치: 손서희

예술교육 협력/영상: 서현재

소극장장관

출연:

김용희, 김원태,

김청순, 이세준,

이주형, 이지원,

박은경

원작소설: 자전거도둑(박완서작), 각색: 김연주

자전거도둑헬멧을 쓴 소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SHINSEGAE  
THEATRE  
국립극단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단  
청소년극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mailto: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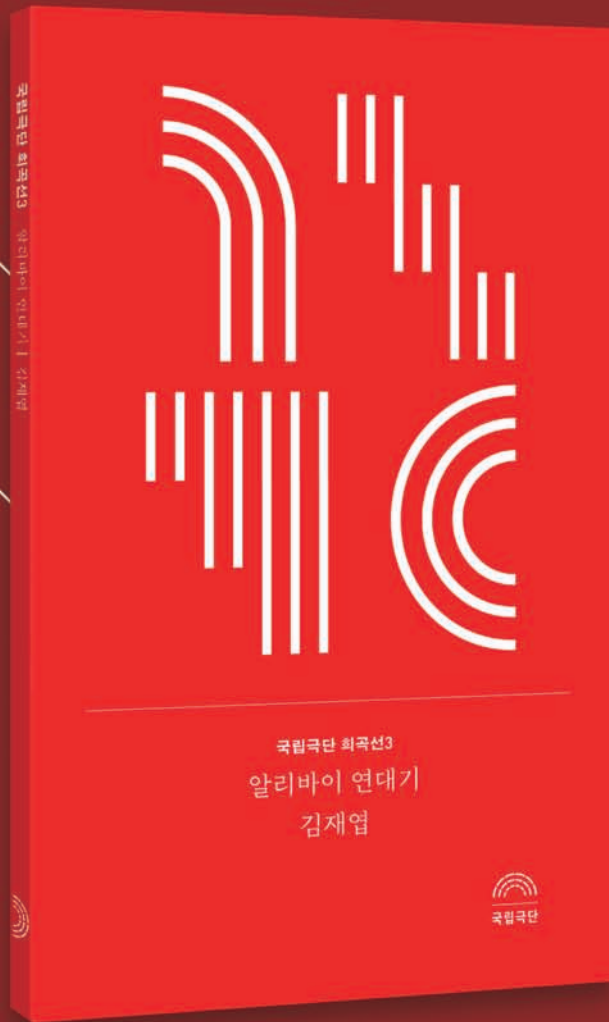
국립극단 02-3279-2259



판매가 8,000원

출판사 걷는사람

본 희곡선은 공연장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극단 희곡선 알리바이 연대기 | 김재엽

국립극단은 우수 희곡 개발과 작가 지원을 위해 걷는사람  
과 함께 국립극단 희곡선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무대 위  
빛나는 순간들이 한국 연극사에,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 희곡선1 | 1945 배삼식

국립극단 희곡선2 | 뼈의 기행 백하룡

국립극단 희곡선3 | 알리바이 연대기 김재엽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율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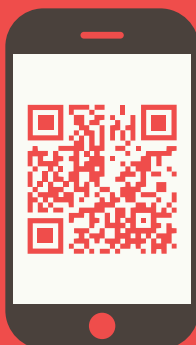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극단

## 제휴처

##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p>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p> <p>02-6004-7391</p>	 <p>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p> <p>02-779-7871</p>
 <p>매콤순살닭튀김 소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p> <p>02-313-1880</p>	 <p>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p> <p>02-774-2828</p>
 <p>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p> <p>02-778-6731</p>	 <p>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p> <p>070-7017-6404</p>
 <p>당일 티켓 소지 시, 1시간 무료 주차 (6,000원 상당) 1시간 이후 초과 주차 시, 10분당 1,000원 부과 (최대 10,000원 부과)</p> <p>02-3783-4101</p>	



#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린 일이 제일 신나는 일이거든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